



지구촌교회 8035명 장기기증 서약 하루만에 한 단체서 열린 캠페인 중 최고기록

한 교회의 장기기증예배에서 8035명이 동시에 장기기증 서약을 해 눈길을 끈다.

경기도 수지에 있는 지구촌교회(담임목사 이동원)는 창립 15주년을 맞아 5월 31일 경기도 분당·수지 성전에서 장기기증 예배를 열었다.

이 날 예배에서는 지구촌교회 교인 1만6000여 명이 참석해 장기기증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예배에 참석한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본부장 박진택 목사)는 "8035명이 생명나눔 운동에 동참한 기록은 본부 창립이래로 단일 단체에서 하루 만에 펼쳐진 캠페인 중 최고의 기록"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사람이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인 장기기증에 온가족이 동참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 받았다"며 "천만 그리스도인들이 장기기증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구촌교회가 견인자 역할을 담당

해줄 바란다"고 말했다.

지구촌교회 관계자는 "평소부터 사회선교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던 지구촌교회는 특별히 올해 창립 15주년을 맞아 아름다운 나눔을 실천하고자 장기기증 예배를 기획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동원 목사는 "창립 15주년을 맞이해 하나님께서 지구촌교회에 부여하신 사랑을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하고자 한다"며 "우리의 작은 나눔이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와 가족들에게 큰 희망과 기쁨이 될 것이다. 복음과 함께 생명을 전하는 교회가 되자"고 말했다.

지구촌교회의 행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1년 전 장기기증 예배를 열어 1200여 명에 달하는 교인들을 장기기증에 동참시켜 우리나라 교회의 장기기증 캠페인의 물꼬를 트는 역할을 담당해 왔다.

이나라 기자

“‘존엄사’ 아직은 시기상조”

가톨릭 생명위원회 강론자로서 밝혀

5월 21일 법원의 존엄사를 인정하는 최종판결이 내려진 가운데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위원장 염수정 주교)가 입장을 발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생명위원회는 6월 3일 '존엄사'와 '존엄사법 제정' 논란에 대한 가톨릭교회의 입장을 정리해 교구 사제들에게 강론자료로 배포했다. 이 자료는 미사 강론 등을 통해 신자들에게 생명과 죽음에 대한 올바른 가톨릭교회의 가르침을 전할 수 있도록 참고 자료로 마련됐다.

염수정 주교는 사제들에게 강론 자료를 배포하는 공문에서 "존엄사"라는 용어는 환자가 고통없이 존엄과 품위를 지니고 맞이하는 죽음이라는 미화된 이미

지를 풍기지만 실제로는 '안락사'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교회는 이 용어의 사용을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염 주교는 "따라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존엄사법' 제정은 용어가 정확히 정리되고, 인간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며, 경제적인 이유로 인위적인 생명단축의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차단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기 전에는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3월 19일,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는 존엄사법 입법 움직임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위원장 장봉훈 주교 명의의 답화문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나라 기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1년, 불교계는?

‘자본·의지·홍보’ 부족... 인프라 구축해야

재가서비스 만족도 높고, 시설서비스는 집에서 가까워야 인기



교계 요양원의 한 요양보호사가 입소 어르신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이 1년을 맞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하 건보공단은 최근 "시행 1년 만에 수급자들의 기능 상태를 크게 호전시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제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 기쁨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그동안 요양시설 등에서 서비스를 받은 수급자들에게 갱신신청서를 받아 조사·판정한 결과 등급하향(상태 호전) 23.9%, 변동 없음 66.4%, 등급상향 9.7%로 나타났다. 어느 정도 안정이 돼가고 있는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이 불교계 복지현장에서는 어떻게 자리잡고 있을까?

#부담 경감 위해 시설 선호

건보공단이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전체 88.7%가 만족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각각의 만족도를 따졌을 때 시설서비스 보다는 재가서비스의 만족도가 높았다.

#불교 요양시설 전체 5%

2009년 4월 기준으로 전국의 요양시설은 1877개로 집계됐는데 이중 종교시설이 576개, 비종교시설이 1301개였다. 현재 불교계 요양시설은 93개로 종교계 시설 비율로 따지면 16%, 전체 시설비율 중 5%에 불과하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009년도에 모집 수 있는 대상 노인인 23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중 60%가 재가 시설을, 40%가 생활시설을 이용하는데 약 9만 2000명의 노인이 생활시설에 입소해야 한다는 계산이다. 하지만 현재 불교계 시설 수용가능인원은 약 4700여 명, 3800여 명이 입소해 생활하고 있다.

이 93곳 중 28개 시설만이 광역시에 위치해 있고 수용가능 인원을 다 채우고 있었다. 이는 실제 이용자들이 외곽의 요양시설보다 교통이 편리한 시설을 바라는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전국 232개 시군구 중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립한 시설은 48개 시군구에서 59개소에 불과해

공공 노인요양시설이 턱없이 부족

했다. 시설이용자도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 집계에 따르면 6개 광역시에 있는 요양시설은 정원을 채우면서 평균적으로 수용가능 인원의 100%가 넘는 대기자가 있으나 중소도시와 군 지역은 정원의 80%도 채우지 못하는 곳이 많았다.

#장기요양, 접근성 최우선 요소

시설을 이용하는 수급자들은 입소시설을 선택할 때 접근성을 중요한 요소로 꼽았다.

건보공단은 "수급자는 입소시설 선택요건 중 시설의 환경상태보다 내 집과 가까운 곳의 요양시설을 선호하며 요양시설을 선택할 때 종교여부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수급자가 생활권내 시설을 이용하기 편리하게 시설이 부족한 서울·부산 지역 등 광역시 중심으로 인프라 확충을 해야 할 필요하다는 전

문가의 의견도 있었다.

#불교계 다각적 노인복지 절실

불교계는 이용자와 어르신들의 반응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불교계 노인복지시설의 관계자는 "접근성을 고려해 시설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종단을 초월해 복지포교에 초점을 둔 다양한 정책을 연구·개발하는 기관을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사회에서 노인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지역을 선정해 건물매입,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는 형식으로 포교할

동도 기대할 수 있다"는 의견도 두드러졌다.

자본이 부족해 시설설립 및 운영이 어렵다면 신도회나 포교사를 중심으로 봉사단을 조직해 재가방문요양서비스(재가복지)에 초점을 맞추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한 노인복지 전문가는 "아직까지 복지를 전공해 복지를 포교로 인식한 스님들이 많지 않다"며 "교계 전체의 의지부족, 정부의 시행제도에 대한 홍보 부족, 고령화 사회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인 이유도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1년을 맞으며, 수급자와 시설관련자들에게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지고 있다. 이 시점에서 불교계도 고령화사회 노인복지포교를 위한 다각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나라 기자 bohjung@buddhapia.com

Tip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노인 수발제도.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는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을 가진 사람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급여대상자 선정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구성된 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매겨 1~3등급을 정한다.

경희의료원 불교실 개원

6월 5일 약사여래불 점안식과 함께 개원식 봉행

불심으로 환자와 환자의 가족들의 약해진 마음을 달래고 회복을 위한 자비기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6월 5일 경희의료원 동관 5층에서 약사여래불 점안식과 함께 개원식이 봉행됐다.

개원식에는 연화사 주지 묘장 스님, 경희의료원 관계자 및 봉사자 등 70여 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법회에 이어 경희의료원 사회복지부에 불우환자를 돕기 위한 자비기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불교실은 2007년부터 연화사(주지 묘장)에 자비원을 설립하고 조계종 복지재단의 간병자 지원 봉사자들의 지속적인 종교적 지지와 서비스, 간병봉사 등으로 신뢰를 쌓아 개원하게 됐다.

묘장 스님은 "많은 분들의 도움과 경희의료원의 배려로 불교실 개원이 가능했다"며 "환자들의 쾌유를 위해 응원과 지지를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견허 스님은 "오직 환자만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불교실을 이끌어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02) 962-6186

이상연 기자

몸 마음 영혼의 완전한 치유법과 최강의 양택 발복법

참나와의 친밀한 만남

참나(여래장)의 즉각적인 발현법 완성!

수 천 년 동안 어렵듯한 말로만 전해져서 긴가민가하던 전설이 20년간의 시행착오와 숱한 임상을 통해 마침내 누구나 즉각 실현할 수 있는 최상승법으로 현실화 됐다.

참나(여래장)가 즉각 발현되면 전신에 경락이 일거에 타통된다.

각종 암을 비롯한 당뇨, 고·저혈압, 아토피, 목·허리디스크, 척추측만, 자가면역질환 등등 거의 모든 난치성질환들이 단시일에 근치된다. 담석마저도 녹아서 소멸된다.

참나(여래장)가 즉각 발현되면 마음과 영혼의 장애가 치유된다.

우울증, 공황장애, 자살충동 등등의 심적 장애가 말끔히 해소된다. 특히 병의, 귀절, 지박령 등등의 현상은 번잡한 절차 없이 원천적으로 해결된다.

참나(여래장)가 발현되면 최강의 양택발복능력이 된다.

9등급으로 양택을 정밀하게 판정하고 기운을 조정하여 최상급의 명당으로 만든다. 체험으로 증명된다.

우주생성의 근본원리로 자타의 본성을 관하는 비법!

부조화로 고통받는 존재의 구성요소들을 규명하고 조정하여 조화로운 상태로 환원하는 비법을 함께 전해드립니다. (1:1 방식으로 전수하며 회비는 3백만원입니다.)

무료 체험신청하세요

좁은 지면에 담지 못한 놀라운 효능!
02)511-5945/ 010-9336-2698

자살영가천도재(무료)

우리 곁을 스스로 떠난 노무현대통령님, 연예인들 및 기업인 그 외 많은 분들, OECD중 일등자살공화국이란 오명은 누구의 책임이라고 탓하기 전에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 업이 많아 다음 생에도 과보는 계속 이어 집니다. 불보살님의 가피와 여법한 스님의 법력에 의한 천도와 유족님들이 지극정성으로 기도할 때 비로소 자살한 영가님은 모든 집착을 버리고 아미타불의 영접을 받아 극락으로 갈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자살위기자라도 구하겠다는 목적으로 창건한 사찰 '묵언마을'에서는 한 많고 불쌍한 자살영가 천도를 다음과 같이 무료 봉행하오니 자살영가와 인연이 있는 분이나, 후원을 원하시는 분은 종교에 관계 없이 아무런 부담 갖지 말고 많은 동참 서원합니다.



일시 : 불기 2553년(2009년) 6월 27일 10시 30분 ~ 14시까지

장소 :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칠장리 403-1

주최 : 한국불교태고종 묵언마을

집전 :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 문화부장 상진스님

신청 : 031) 672-3108. 카페(다음,네이버) "묵언마을"